

# 수입자유화 정책의 허(虛)와 실(實)

송 기 철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



본고는 지난 4월 29일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래병)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있는 낙농 및 유가공업 육성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전재하는 것이다. 이날 서울 농대의 김현욱 교수, 단국대 김 동희 교수, 서울우유 유 윤수 조합장도 수입개방정책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했으나, 우리 축산분야(농업분야)에서 지금까지 함께 호흡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어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수입개방정책에 양측인의 관심 모아지고 있는 이때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1. 전환기 경제

83년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는 중요한 재편성의 갈림길에 와 있는것 같다. 제 1차에 이은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지속된 고유가의 충격은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어 드디어 세계경제성장의 한계성을 보여 주는 낮은 성장시대로 들어온 느낌을 보여 주었다. 그와 더불어 외환시세 변동의 극심화, 오일머니의 증대, 무역마찰의 격화, 개발 도상국의 추월 노력, 국제적 인플레이션, 다국적 기업의 비중 증대 등 여러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소비주도형 경제의 도래, 경제성장을 저하, 산업격차, 기업격차의 증대, 스태그플레이션, 산업구조 변화 등의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환경, 즉 정치적 사회

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에서의 영향을 서로 받으며 또 영향을 끼치며 하나의 존재로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유가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가는 국가대로 그의 생존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적응하려는 노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첫째, 제 3차 산업 취업인구의 상승경향, 제 1차 산업의 감소, 제 2차 산업취업인구의 합리화로 상대적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마케팅 중시형 경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경영다각화의 경영전략을 택하고 있다.

둘째로 단순한 경공업이나 단순한 중공업에서 탈피하여 성(省) 자원, 성(省) 에너지 산업,

두뇌집약형산업, 에너지 개발산업으로 구조전환을 위해 자원 낭비형 산업에서의 탈출, 제품설계 생산공정과정에서의 전자두뇌사용 등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제품 보급률의 둔화에 따른 대체 수요의 이행(移行), 다각화대상 산업의 중복,

소비수요의 신장저하에 따른 기업과 국가간의 경쟁 격화라는 경쟁구조의 심화 등으로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의 구조개선 노력이 가일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선 노력은 현재의 세계 경제가 국제화를 지향하면서도 국가 단위로 모든 것을 생각하여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국가와국가 사이의 국제적 산업정책, 그리고 국내에서의 산업정책, 등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가 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커다란 전환기에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산업정책

더군다나 83년에 들어와서 고유가시대에서 저유가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은 나름대로 많이 속을 썩이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에서 예외일순 없다. 우리 경제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기술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단순한 경공업 중심의 몸으로 때우면서 「국제우위」를 유지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외화도 벌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우리의 산업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여「한국인이 몰려온다」는 등의 선정적 이야기를 듣게끔 된 것도 우리 경제의 밝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국제우위적 이점이 감퇴하고 있다. 즉 공산권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원가를 무시하는 경영전략으로 싼 물건을 대량으로 투매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걸음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관세장벽, 수량규제, 과징금의 설정 등 여러 장벽을 만들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또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자원을 갖고서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와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선진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 후진국들은 긴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경제개발을 하되 우리 것을 뒤따라 하고 있다는 냉엄하고 어려운 현실하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마치 오방(五方) 샌드위치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즉 공산권 국가에서의, 선진국에서의, 자원보유국에서의, 선진개발도상국에서의, 후진국에서의 5중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유지하며 계속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방향이 추구하고 있는 사이에 80년대에 우리 산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83년초부터 커다란 논쟁이 벌어져 그 방향 설정에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 3. 개방과 보호

80년대의 산업정책방향을 둘러 싸고 개방논쟁이 한창 일고 있다. 한국 개발연구원(KDI)이 전면적, 즉시적 개방정책을 터뜨린 것을 계기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논쟁의 제 1라운드 시작되었다.

이어 연구기관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재무부와 상공부가 의견대립을 보여 개방정책공방전은 제 2라운드로 들어섰다. 또 이 논전에 언론기관과 학계, 그리고 이익단체인 경제단체까지도 가세하여 제3라운드로 들어가더니 상공부로서는 86년에 자율화율을 90% 선으로 높히겠다는 이야기로 자유화정책을 가속화시킬 뜻을 비치고 있으며 또 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의 경제단체는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외채문제와 관련, 자유화 정책을 신중히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나름대로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KDI와 KIET의 대결은 우리 경제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개방 경제론의 접근방식 차이에 온 것으로 보여진다. 개방경제에 최적 진입방식을 KDI는 과감한 수입개방을 통해서 전면적, 즉시적으로 하자는 것임에 반해서 KIET는 국내산업보호를 통해 단계적, 부분적, 점진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KDI는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대책의 개편방향」에서 국내산업의 지나친 보호를 지양하고,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 비교우위론에 바탕을 둔 산업정책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수입자유화를 예시하여 국내산업이 대응전력을 세우도록 자극을 주면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개편 85년 이후 최고관세율이 30%로 낮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시한부 보호로 병행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IET는 「80년대의 산업정책방향」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과 함께 유치산업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수입개방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내적인 정책수단을 통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기른 다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국내산업의 상호경쟁여건조차 미비한 상태인데다가 고용들을 생각할때 비교우위론만을 내세운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개방지향에는 이의가 없고 다만 문제는 개방에의 수단을 둘러싼 정책적 선택의 차이에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산업의 지나친 보호로 여러 폐해를 가져 오지만 개방쇼크의 피해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 4. 개방정책의 허실

경제사상이나 경제정책으로 보아 몇 세기를 거치면서 되풀이되는 논쟁이 무척 많다. 가치

판단은쟁이라든가 경제방법논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논쟁 중 얼치락 뒤치락 하면서 되풀이 되는 논쟁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방논쟁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설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개방론과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론은 개방논쟁의 고전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신흥국인 영국을 배경으로 한 아담 스미스 개방론과 후진국 독일을 배경으로 한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론을 아무리 몰가치론적 경제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과 현실을 눈 감고서 무턱대고 전면적 개방론 혹은 전면적 보호론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보호론이라 해서 일방적, 전면적 보호론을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방논쟁을 몰가치론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가치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견지에서 개방정책을 현실적, 점진적, 부분적으로 실천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경제학에는 국적이 없을지 모르나 경제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다.

특히 경제정책학자는 무엇이 더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는가에 대하여 좀더 깊은 배려를 하게 된다.

개방정책이 강자의 논리도 약자의 논리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개방정책이 전적으로 강자의 논리이고 보호론이 전적으로 약자의 논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또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작용한 엄연한 사실에 우리는 눈을 감아선 안된다.

다음으로 비교우위론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작용하고 또 우리의 현실로 보아 과연 어느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국제우위를 갖고 있으며 현재의 국제우위를 갖고서도 능히 우리 경

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검토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검증되었는지 한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의 비교우위로 되어 있는 저렴한 노동력 즉「몸으로 배우는」우위성은 이제 많이 상실되고 앞으로는 기술우위 즉「머리로 배우는」우위성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어정쩡한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정쩡한 국제우위에서 개방을 한다는 것은 노동우위성은 공산권이나 후진국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고 기술 우위성은 선진개도국 내지 선진국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샌드위치적 존재인 우리경제현실을 너무나도 과대평가 내지 낙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4 경제단체가 외채문제와 관련하여 수입자유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과제이냐에 대해선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수지에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많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쌀 물가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참고 견디고 또 국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로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수입자유화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때에는 「논농사는 무엇 때문에 짓노, 국제비교우위도 없는데 수입해다 먹는 것이 몇 배나 싸게 먹히는데」하고 정칙고위당국자가 한 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KDI 주장에는 이런 주장은 한발자국 뒤 돌아섰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그렇게 했다고 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외화는 과연

어디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 이 사례가 그에 꼭 맞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늘어나는 외화부담으로도 개방후 외화부담이 혹시 일시적일지는 모르나 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국제수지 사정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외채가 늘어나고 있다. 자유화로 된 나중에도 그것도 성공한 경우에는 모르되 당분간은 외화수요는 일단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외화누증으로 「要害의 국가의 일원」이 되고 있는 마당에 전면적 개방정책이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정부정책 수준, 기업경영수준 그리고 일반의 경제수준이 전면적 수입개방정책을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일단 생각해야 한다. 행정관청이나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간섭, 관여가 생리로 되어 있고 경제관료 역시 경제적 간섭과 관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관료의 생리이다.

이러한 간섭적, 관여적 행정생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져서 개방정책이 문자 그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운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전면 개방이 새로운 전면간섭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 기업으로 보더라도 민족기업으로 깨끗하게 키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찍 백기를 들고 외국기업에 항복 안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매관자본 운운하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기업과 기업가의 수준이 이런 외국과의 자유경쟁에서 굳건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기업적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패배주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없다.

또 우리 국민의 민도로 볼 때 전면수입개방을 했을 때 현재의 가격과 품질거래조건에도 눈을 팔지 않고 약간 불리하더라도 국내상품을 어느 정도 애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것은 일제전기발출으로서도 그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걸음으로는 무역자유화를 높이 외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음성적 조치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슨 자신이 있어서 홀랑 벗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5. 다 벗어줄 순 없다.

몸을 건강히 하기 위해서 옷을 얇게 입으면서 피부를 단련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피부를 단련시키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엄동설한에 홀랑 옷을 벗어버리면 감기가 들 뿐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켜 마침내는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할 순 없다.

그렇다고 언제나 두툼한 겨울 옷 속에서 봄이나 여름 혹은 가을을 맞을려고 할 생각은 없다.

봄, 여름, 가을의 진도와 자기 건강상태에 맞추어 옷을 가려입는 일을 깨울리할 생각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태두리 안에서 순리에 맞게 우리는 수입자유화정책을 떠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비타민-E 절약 및 상승 효과

셀레늄 (Se) 시료첨가제

# SELMIX

가축의 필수 광물질 제제 - 셀믹스 -

착색효과가 뛰어난

## 키산토 - 그로우



안정성이 탁월한

(천연 키산토티플 제제)

## 키산토-그로우 (Xantoh-Glow)

red 색깔의

CITRANAXANTHIN  
(BASF)



株式会社 中央ケミカル

본사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89

(한신빌딩 602호) ☎ 783-8661~5